

전두환씨 부자 증여세 취소訴

전두환 전(前) 대통령 부자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8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두환·재용씨 부자는 확정되지 않은 법인 판결만을 근거로 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전두환씨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은 위법하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용씨는 소장에서 "서울고법이 2004년 증여세 포탈 형사 재판에서 167억원 상당의 채권 중 73억원원은 부친, 나머지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세무 당국이 이를 근거로 각각의 증여에 대해 39억원과 41억원의 2000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씨도 "차남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는 별도로 증여자도 아닌 본인에게 39억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위법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외조부로부터 167억원(시가 119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고도 이를 은닉해 70여억원의 증여세를 포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목포 시민·학생 10여명 구조 나서

학원차 전복사고 피해 줄였다

길 가던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긴급 구조에 나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크게 줄였다.

26일 오후 4시25분께 목포시 북항동 신안비치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안비치아파트에서 목포보건소로 향하던 K 피아노학원 소속 전남78버 26××호(운전자 김모·34) 승합차가 전남28라 64××호(운전자 조모·41)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학원 승합차가 뒤집히면서 차에 타고 있던 김모(7·연산초교 1년)양 등 3명이 크게 다치고, 또 다른 학생 3명이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인근 시민과 운전자 등 10여 명이 전복된 학원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의 구조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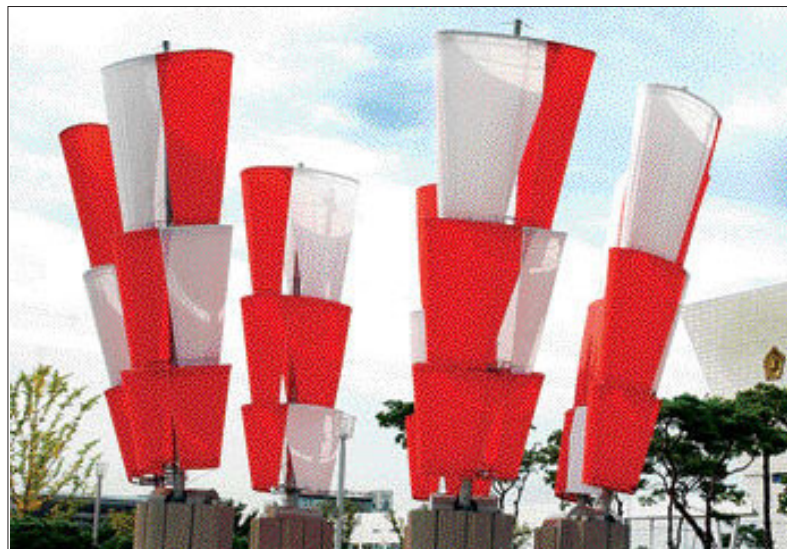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2005 가을



지난해 10월 가을옷 '하늘 위의 뽕뽕이'(DOTS IN THE SKY)를 입고 점등식을 하고 있는 조형물.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006 가을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시청 앞 시민광장에 있는 조형물 '기원'에 계절에 맞지 않은 여름옷 '나래'(WING)를 입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없는 광주' 문화수도 맞아?

시청 앞 미래 도시 상징물 '기원' 계절별 옷 입도록 디자인 하고도 봄·가을 옷 훼손...아직도 '여름'

요즘 광주시청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밤낮으로 시민광장을 지키고 있는 '미래도시' 광주의 상징물 '기원'이 여름옷(WING·나래)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다.

광주시가 이 조형물을 시청 광장에 설치한 것은 지난해 10월17일,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전시 작품 중 하나로 기획됐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75·Alessandro Mendini)가 큐레이터 구성회(프린트디자인 대표)씨의 제안으로 설치한 이 오브제(object)는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하늘거리는 부채살 같은 '뽕뽕이'(폴방울) 무늬를 자랑하며 '디자인 메카' 광주의 출현을 전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국내 최대의 멀티미디어 조형물로 높이 20m인 7개의 탑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 각 계절별로 다른 옷(스킨)을 입도록 디자인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엉뚱한 옷을 입고 시민들을 맞았다.

겨울에 걸기로운 '여름'(DAWN)은 여름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 검은 바탕에 붉은 색으로 만들어졌는데, 광주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대신 여름옷인 '나래'(WING)가 내걸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국내 최대의 멀티미디어 조형물로 높이 20m인 7개의 탑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 각 계절별로 다른 옷(스킨)을 입도록 디자인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엉뚱한 옷을 입고 시민들을 맞았다.

기 뿔졌다. 가을 옷 '하늘 위의 뽕뽕이'(DOTS IN THE SKY)도 이미 강한 햇빛과 강풍에 시달려 뽕뽕이 무늬가 대부분 떨어져 나가 못쓰게 된 상황이였다. 옷의 소재가 폴리에스테르인 탓에 강풍에 견디기 힘들데다, 한번 벗기고 입히는데 드는 80만 원이 부담이 돼 제 때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작가들은 초속 20m이상의 바람이 불면 파손 등을 우려해 옷을 벗기도록 했다. 광주시청 주변에는 연간 30일 이상 초속 20m의 바람이 부는.

광주시는 지난 21일 여름 옷을 또다

시 '기원'에 입혔다. 계절별 옷 한 벌을 마련하는데 드는 2천500만 원~3천500만 원의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작비 7억5천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했으나 현재의 청사 관리 예산으로는 조형물 관리에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년 디자인비엔날레에서 공모 등을 통해 반영구적인 소재로 옷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구성회씨는 "디자인 메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랜드마크(land mark)적 상징물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지원 광주전남 문화연대 사무국장은 "무조건 설치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빛은 창피한 일"이라며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미술 관리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포털 '지식서비스' 악용 신종 대출사기 극성

e메일·댓글로 송금 유도

국내 포털사이트 '지식 서비스' 등을 악용해 네티즌으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 S보험회사 직원 신모(34·서울시 성북구 둔암동)씨는 지난 4월 '네이버'

(www.naver.com)의 '지식 in'에 '학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고 싶다'는 글을 남긴 최모(여·19)씨에게 e-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대출을 받아줄 테니 수수료 20만원을 달라'는 내용. 신씨는 수수료로 송금받은 후 자신의 e-메일과 주소

등을 인터넷에서 지워버렸다. 이런 수법으로 편취한 돈은 3천만원으로, 돈을 송금한 네티즌은 18명이였다.

신씨는 포털사이트의 '지식 서비스'에 글을 남기면 작성자의 e-메일도 함께 게재되는 것을 악용, 메일을 보내거나 '댓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다.

사기를 당한 네티즌은 ▲결혼자금을 마련하려는 미혼남녀 ▲학자금에 필요한 대학생 ▲생활비가 부족한 신용불량자 등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였다.

경찰이 e-메일과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씨에게 대출 상담을 받은 사람은 340여 명에 달했다.

경찰은 26일 신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지식 서비스'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여성전용 사무내에 도박 PC 설치

○광주 동부경찰은 26일 여성전용 사무내에 도박 프로그램이 내장된 PC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김모(여·46·광주시 동구 수기동)씨를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동구 S 여성전용사무내 휴게실에 도박 프로그램 '진검승부'가 내장된 PC 4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ID·비밀번호·사이버 머니 등을 제공해 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김씨는 여성전용 사무내에는 남성 이 대부분인 경찰이 단속을 벌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박 PC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임주희기자 jhlm@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COMONDRE, TNGT, 20 ANELLO, lafuma,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당점
110000511-0249

11월 3일 광주출발(단1회)

쾌적은 금강산 기차여행 (무박3일)

11월 3일 11월 6일 11월 13일

구분	11월 3일	11월 6일	11월 13일
출발	11월 3일 08:00	11월 6일 08:00	11월 13일 08:00
도착	11월 6일 18:00	11월 9일 18:00	11월 16일 18:00
여행비	1,2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식사비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숙박비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기타비	50,000원	50,000원	50,000원
합계	1,5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호남이관광여행사 T. (062)529-6630 / FAX. (062)529-4754